

초등학생의 여가참여유형이 여가만족도와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Different Types of Leisure Activities' on the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Primary School Students

신연수*

대덕대학 복지학과

Shin, Yeon Su*

Social Welfare Division, DaeDuk Colleg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different types of leisure activities' on the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primary school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467(boys=191, girls=276) primary school students. The data was analyzed by one way ANOVA, factor analysis, Chi-square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regression analysis. The main findings of thi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kinds of activities participated in according to gender. Second, among of the subscale of leisure satisfaction, boys showed higher scores in more education and physical satisfaction than girls, and in the subscale of psychological well-being, boys indicated a higher score in flow and happiness than girls. Thir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leisure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the types of leisure activity . Fourth, the participation motivation of leisure activity statistically influenced psychological well-being. Fifth, leisure satisfaction partially influenced on psychological well-being. Social and environmental satisfaction significantly influenced flow. Education and social satisfaction significantly influenced happin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Keywords: primary school student, leisure satisfaction, psychological wellbeing, leisure activity

I. 서 론

현대 사회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학교 교육에만 치중되어 있으며, 학교 밖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적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전학교가 월1회의 주 5일 수업제가 시행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되면서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여가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초등학교 시기는 중·고등학교 시기에 비하여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높기에 여가 시간의 활용 방안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아동은 미래사회의 주인공이자 그 사회의 미래이고 국가와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과 위치를 담당하게 될 중요한 재원으로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지성현, 2006), 균형 잡힌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변화와 자기 표현력을 가진 개성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또한,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인간성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인간으로써 조화로운

* Corresponding author: Shin, Yeon Su
H-P: 010-8628-7403, Fax : 0505-480-1628
Email: manim0306@hanmail.net

발달을 위한 새로운 교육적 활동이 요구되면서 아동이 경험하는 여가에 대한 이해와 바람직한 여가활동을 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건전한 여가활용은 개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며, 창조적 활동과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키면서 삶의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여가활동의 참여는 타인과의 상호경쟁과 협력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태도를 경험할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렇기에 감수성이 예민한 초등학교 시기에는 학교교육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가정, 학교,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진취적인 여가활동이 그들의 자아실현과 개인의 완성을 위한 귀중한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아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밑거름으로 여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바람직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의 방법을 터득하게 하는 안내와 지도가 필요하다(김영태, 2002). 이를 위하여 선진국에서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을 장려하면서 여가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초등학교 시기의 여가활동은 주체적 의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기존의 여가활동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고영태, 2006; 김미향, 2004; 김재운, 2003; 전형상, 장순용, 2002; 최길례, 2006; 최장호, 박영숙, 2003)에서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태도, 여가만족도, 생활만족간의 관계 규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연구들은 여가활동이 대학생들의 건강 유지 증진 및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여가활용과 관련지어 이루어진 선행연구(고천호, 2003; 박동선, 2005; 박찬보, 2002; 신근춘, 2004; 최종연, 2004; 최혜란, 2000)는 주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여가활동참여가 대인관계성향,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가활동 참여가 참여자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Shaw *et al.*(1995)은 스포츠나 신체적 여가활동에 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TV시청과 같은 비신체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보다 정체감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능동적 여가활동이 수동적 여가활동 보다 개인의 여가만족도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또한, 여가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여가만족은 삶의 질

을 결정짓는 하위 요인으로 중요하게 작용하기에(김영재, 2004b), 여가를 통한 만족감은 심리적 행복감도 증진시킬 수 있다. 여가만족이란 여가활동의 선택과 참가의 결과로서 개인이 형성하거나 획득되는 긍정적 인식 혹은 감정이며(Beard & Ragged, 1980), Neulinger & Raps(1972)는 여가만족을 특정 여가활동을 통해 개인이 추구하는 목적 및 욕구를 달성했을 때 느끼는 활동에 대한 주관적 만족이라고 하였다. 초등학교 시기는 또래와 어울리는 상황을 즐기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 시기에 참여하는 여가활동은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자신감과 자아실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여가활동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민경훈, 김수겸(2008)의 연구에서도 여가활동참여와 여가만족 그리고 심리적 행복감간에 부분적으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가참여가 심리적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여가에 관련된 연구는 성인(노인, 여성, 직장인 등), 청소년(대학생, 중·고등학생) 중심의 여가연구에서 아동·청소년의 여가활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실태조사 중심이고, (김경집, 2006; 김보숙, 2009; 김장훈, 2006; 김진곤, 2008; 박교식, 2004; 배현주, 2008; 석정선, 2009; 윤재성, 2004; 주경남, 2007) 자아개념 및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김경렬, 2010; 김윤경, 2010; 김혜진, 2009; 문수정, 2009) 등이 많으며, 방과후 프로그램 중에서 신체활동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초등학생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구체적인 여가활동이 그들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고 단편적인 여가활동 실태 파악정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가에 대한 연구에서 성별의 차이에 대한 언급이 많았는데, 이는 사회·문화적인 요인으로 남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여가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이 여가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의 여가만족도와 심리적 행복감을 조사·분석하여 그들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인격을 형성함으로써 학교생활 및 또래관계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여가활동유형, 여가만족도, 심리적

행복감에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여가활동유형별 여가만족도와 심리적 행복감에
 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여가만족도가 심리적 행복감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는 2010년 대전 소재 S 초등학교와 Y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표집은 유충표집법을 이용하여 추출하였으며, 표집된 인원수는 총 480명으로 회수된 자료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하였다고 판단되거나 조사내용에서 일부의 내용이 누락된 13명을 제외하고 467명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은 여학생이 276명(59.1%)으로 남학생 191명(40.9%)보다 많았다. 학년에서는 5학년 177명(37.9%)으로 가장 많았으며, 4학년 157명(33.6%), 6학년 133명(28.5%)으로 나타났다. 여가의 참여유형에서는 관람감상부문 121명(25.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교부문 99명(21.2%), 스포츠부문 92명(19.7%), 취미교양부문 86명(18.4%), 놀이오락부문 69명(14.8%) 순이었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목적을 규명하기 위해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문항(성별, 학년), 여가활동 참여유형 1문항, 여가만족도 24문항, 심리적 행복감 20문항의 총 4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여가활동 유형

여가활동 유형은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형태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구체적인 여가활동 참여 형태를 스포츠활동, 취미교양활동, 관람감상활동, 사교활동, 놀이오락활동 등 5가지로 분류하였다.

2) 여가만족도 척도

본 연구에서 여가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사용한 척

도는 Beard와 Ragged(1980)에 의해 개발된 LSS를 김영재(2004a)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하여 개발한 여가만족척도(Leisure Satisfaction Scale; LSS)를 본 연구의 대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회적 만족(나는 여가활동을 통해 친구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등 4문항), 정서적 만족(나는 여가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얻는다 등 5문항), 신체적 만족(나는 여가활동을 통해 나의 신체적 능력을 시험해 볼 수 있다 등 3문항), 환경적 만족(내가 여가활동을 하는 시설 및 장소는 깨끗하다 등 4문항), 교육적 만족(내가 하는 여가활동은 새로운 것을 배우게 해준다 등 5문항)의 5개 하위요인으로 총 24문항이었으나, 본 연구에서 요인분석을 거친 후 21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내가 하고 있는 여가활동은 휴식을 취하는데 도움을 준다.’ 등 3문항은 제외되었다. 설문에 대한 응답방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으면 여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심리적 행복감 척도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생의 심리적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양명환(1998)이 개발한 인지적-정서적 상태 측정지를 아동학 전문가 3인의 검토를 거쳐 본 대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개의 하위척도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거친 후 몰입감(예. 나는 어떤 활동이나 활동자체에 몰두한다 등) 10문항, 즐거움(예. 나는 모든 일에서 항상 쾌감을 느낀다 등) 7문항 등 총 17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방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으면 심리적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에 관심을 두고 논리적인 분석과 이론적 체계하에서 가설적 개념들을 평가할 수 있는 적합성에 의해 결정된다. 구성 타당도를 판단하는 방법으로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요인추출 방법은 고유치(eigenvalue)가 1.0이상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요인구조의 단순화(simple structure)를 위하여 직교회전(orthogonal rotation)방법 중 베리액

스(varimax) 회전방법을 이용하였다.

1) 여가만족도

<표 1>에 의하면 여가만족도 척도 중 고유치가 1.0이 상인 5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전체 분산 설명력은 67.21%이다. 요인 1에 요인부하량을 보이고 있는 항목은 문항 13, 14, 15, 16, 17의 5개 항목으로 모두 정서적 만족에 관련된 문항이다. 요인 2에 요인부하량을 보이고 있는 항목은 문항 4, 5, 6, 7, 8의 5개 항목으로 모두 교육적 만족에 관련된 문항들이다. 요인 3에 요인부하량을 보이고 있는 항목은 문항 9, 10, 11, 12의 4개 항목으로 모두 사회적 만족에 관련된 문항들이다. 요인 4에 요인부하량을 보이고 있는 항목은 문항 21, 22, 23, 24의 4개 항목으로 모두 환경적 만족에 관련된 문항들이다. 요인 5에 요인부하량을 보이고 있는 항목은 문항 18, 19, 20의 3개 항목으로 모두 신체적 만족에 관련된 문항들이다.

2) 심리적 행복감

<표 2>에 의하면 심리적 행복감 중 고유치가 1.0 이상인 2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전체 분산 설명력은 49.61%이다.

요인 1에 요인부하량을 보이고 있는 항목은 문항 5, 6, 3, 7, 9, 1, 4, 2, 8, 10의 10개 항목으로 모두 몰입감에 관련된 문항들이다.

요인 2에 요인부하량을 보이고 있는 항목은 문항 11, 17, 12, 13, 14, 16, 15의 7개 항목으로 모두 즐거움에 관련된 문항들이다.

또한 본 연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신뢰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s α 값이 몰입감 .971, 즐거움 .939로 나타나 심리적 행복감의 측정변인들의 신뢰도 계수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여가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정서적만족	교육적만족	사회적만족	환경적만족	신체적만족	
e15 e14 e17 d16 e13 e5 e6 e7 e8 e4 e10 e12 e9 e11 e3 e1 e2 e21 e20 e18 e19	.312 .305 .270 .204 .516 .002 .094 .178 .148 .142 .119 .198 .097 .097 .213 .119 .060 .155 .198 .153 .083 .245	.198 .061 .008 .006 .161 .056 .219 .141 .197 .119 .208 .097 .176 .007 .138 .051 .233 .294 .165 .093 .155	.043 .143 .287 .284 .037 .056 .219 .141 .197 .119 .133 .040 .021 .021 .142 .095 .225 .020 .064 .169 .196	.051 .100 .101 .131 .172 .109 .185 .202 .130 .145 .128 .035 .060 .289 .268 .144 .139 .632 .168 .122 .140	.219 .166 .044 .051 .334 .061 .079 .182 .158 .215 .066 .174 .050 .159 .100 .146 .017 .338 .851 .850 .749
고유치 분산% 누적%	8.924 37.181 37.181	2.240 9.335 46.517	1.925 8.021 54.537	1.633 6.804 61.342	
신뢰도	.855	.832	.850	.856	
				.882	

〈표 2〉 심리적 행복감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몰입감	즐거움
h5	.839	.272
h6	.830	.307
h3	.814	.295
h7	.802	.316
h9	.801	.336
h1	.771	.306
h4	.763	.289
h2	.753	.384
h8	.728	.338
h10	.717	.320
h11	.320	.818
h17	.311	.793
h12	.384	.781
h13	.167	.733
h14	.382	.716
h16	.371	.695
h15	.316	.663
고유치	12.971	1.487
분산%	64.857	7.435
누적%	64.857	72.292
신뢰도	.971	.939

4. 자료처리

통계프로그램 SPSS 15.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 분석을 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설문지의 타당도 검사는 요인분석, 신뢰도 검사는 Cronbach's α 검사를 실시하였다. 성별과 학년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을 하였다. 성별에 따른 여가만족도와 심리적 행복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여가활동 유형별 여가만족도와 심리적 행복감에 대한 평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의한 차이에 대한 사후검증은 Tukey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초등학생의 여가만족도가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과 중대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III. 연구결과

초등학생의 여가참여유형이 여가만족도와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성별에 따른 여가활동유형, 여가만족도, 심리적 행복감에 대한 차이검증

1) 성별에 따른 여가활동유형에 대한 χ^2 검증

〈표 3〉은 성별에 따라 여가활동유형에 대한 χ^2 검증을 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성별에 따른 여가활동유형에 대한 χ^2 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63.305, p<.001$).

그 결과 남학생은 스포츠활동(36.6%)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관람감상활동(18.8%), 사교활동(16.2%), 놀이오락활동(15.7%), 취미교양활동(12.6%)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관람감상활동(30.8%)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이 가장 높았으며, 사교활동(24.6%), 취미교양활동(22.5%), 놀이오락활동(14.1%), 스포츠활동(8.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 성별에 따른 여가활동유형에 대한 χ^2 검증

N=467

여가활동 유형						전체
	스포츠 활동	취미교양 활동	관람감상 활동	사교활동	놀이오락 활동	
남 학생	70 (36.6)	24 (12.6)	36 (18.8)	31 (16.2)	30 (15.7)	191 (100.0)
여 학생	22 (8.0)	62 (22.5)	85 (30.8)	68 (24.6)	39 (14.1)	276 (100.0)

 $\chi^2=63.305, df=4, p<.001$

2) 성별에 따른 여가만족도 차이

〈표 4〉는 성별에 따른 여가만족도에 대한 평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이다. 그 결과 교육적 만족($t=2.228, p<.05$), 신체적 만족($t=4.930,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육적 만족에서는 남학생이 평균 3.44 여학생 평균 3.29로 남학생의 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신체적 만족에서는 남학생 평균 3.53 여학생 평균 3.12로 남학생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정서적 만족, 사회적 만족, 환경적 만족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만족도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전체적으로 여가에 참여할 때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았다.

3) 성별 심리적 행복감 차이

<표 5>는 성별에 따른 심리적 행복감에 대한 평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이다. 그 결과 몰입감($t=3.183, p<.01$)과 즐거움($t=2.037, p<.05$)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다른 영역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여가에 참여했을 때 만족도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여학생에 비하여 남학생은 여가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이 느끼는 심리적 행복감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여가활동유형별 여가만족도와 심리적 행복감 차이

<표 6>은 여가활동유형별 여가만족도에 대한 평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한 결과이다. 그 결과에 의하면 여가활동유형에 대한 주효과는 정서적 만족($F=3.089, p<.001$), 교육적 만족($F=11.314, p<.001$), 사회적 만족($F=16.445, p<.001$), 환경적 만족($F=6.520, p<.001$), 신체적 만족($F=18.115, p<.001$)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주효과에 대한 사후검증한 결과, 정서적 만족과 교육적 만족에서는 스포츠활동 참여자가 취미교양활동 참여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만족에서는 스포츠활동 참여자와 사교활동 참여자가 취미교양활동, 관람감상활동, 놀이오락활동 참여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환경적 만족에서는 스포츠활동 참여자가 관람감상활동, 사교활동, 놀이오락활동 참여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신체적 만족에서는 스포츠활동 참여자가 취미교양활동, 관람감상활동, 사교활동, 놀이오락활동 참여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7>은 여가활동 유형별 심리적 행복감에 대한 평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한 결과이다. 그 결과 여가활동 유형에 대한 주효과는 몰입감과 즐거움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주효과에 대한 사후검증한 결과, 몰입감에서는 스포츠활동 참여자가 취미교양활동 참여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즐거움은 스포츠활동 참여자가 관람감상활동 참여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4〉 성별 여가만족도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

	남학생(n=191)	여학생(n=276)	t
	M(SD)	M(SD)	
정서적 만족	3.87(.72)	3.82(.63)	.813
교육적 만족	3.44(.71)	3.29(.69)	2.228*
사회적 만족	3.65(.80)	3.52(.73)	1.881
환경적 만족	3.43(.75)	3.33(.68)	1.477
신체적 만족	3.53(.92)	3.12(.86)	4.930***

* $p<.05$, ** $p<.001$

〈표 5〉 성별 심리적 행복감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

	남학생(n=191)	여학생(n=276)	t
	M(SD)	M(SD)	
몰입감	2.85(1.17)	2.50(1.13)	3.183**
즐거움	3.05(.99)	2.86(.97)	2.037*

* $p<.05$, ** $p<.01$

〈표 6〉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여가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

	스포츠 활동 (n=92)	취미교양 활동 (n=86)	관람감상 활동 (n=121)	사교 활동 (n=99)	놀이오락 활동 (n=69)	F	Tukey
	M(SD)	M(SD)	M(SD)	M(SD)	M(SD)		
정서적 만족	4.05(.62)	3.97(.72)	3.67(.57)	3.82(.61)	3.70(.79)	6.089***	A>C
교육적 만족	3.67(.60)	3.48(.75)	3.07(.59)	3.35(.65)	3.27(.84)	11.314***	A>C
사회적 만족	3.93(.71)	3.50(.74)	3.25(.66)	3.83(.68)	3.39(.83)	16.445***	A,D>B,C,E
환경적 만족	3.65(.80)	3.47(.70)	3.22(.65)	3.23(.61)	3.33(.72)	6.520***	A>C,D,E
신체적 만족	3.95(.82)	3.20(.83)	3.02(.82)	3.18(.78)	3.16(1.05)	18.115***	A>B,C,D,E

A:스포츠활동, B:취미교양활동, C:관람감상활동, D:사교활동, E:놀이오락활동

*** $p<.001$

〈표 7〉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심리적 행복감에 대한 분산분석

	스포츠 활동 (n=92)	취미교양 활동 (n=86)	관람감상 활동 (n=121)	사교 활동 (n=99)	놀이오락 활동 (n=69)	F	Tukey
	M(SD)	M(SD)	M(SD)	M(SD)	M(SD)		
몰입감	2.98(1.30)	2.51(1.24)	2.54(.98)	2.52(1.12)	2.72(1.12)	2.824*	A>B
즐거움	3.23(1.07)	2.84(1.07)	2.72(.82)	2.98(.98)	2.99(.94)	3.823**	A>C

A:스포츠활동, B:취미교양활동, C:관람감상활동, D:사교활동, E:놀이오락활동

* $p<.05$, ** $p<.01$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여가활동유형별 여가만족도 및 심리적 행복감에 차이를 알아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는 교육적 만족($F=4.19, p<.01$), 신체적 만족($F=13.88, p<.001$)에서 여학생의 경우는 교육적 만족($F=6.11, p<.001$)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표 9〉). 남학생의 경우 관람감상활동에 참여한 학생이 나머지 활동에 비하여 교육적 만족도가 높았으며, 신체적 만족도에서는 스포츠 활동 참여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는 스포츠 활동에 참여한 경우에 다른 여가활동에 참여한 경우보다 교육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스포츠 활동 참여한 경우 여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3. 여가만족도가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표 10〉은 여가만족도와 심리적 행복감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 결과 여가만족도와 심리적 행복감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몰입감은 정서적 만족($r=.203, p<.001$), 환경적 만족($r=.254, p<.001$), 신체적 만족($r=.229, p<.001$)에서 즐거움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몰입감과 즐거움 사이에서도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r=.772, p<.001$). 이것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에 대한 즐거움이 클수록 몰입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아동이 할 수 있는 즐거운 경험을 통하여 그들의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것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표 8〉 남학생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여가만족도 및 심리적 행복감에 대한 분산분석

	스포츠 활동 (n=70)	취미교양 활동 (n=24)	관람감상 활동 (n=36)	사교 활동 (n=31)	놀이오락 활동 (n=30)	F	Tukey
	M(SD)	M(SD)	M(SD)	M(SD)	M(SD)		
여가만족도	교육적만족	3.66(.61)	3.48(.82)	4.09(.50)	3.44(.56)	3.33(.87)	4.19** C>A
	신체적만족	3.09(.77)	3.01(.59)	3.08(.88)	3.34(.69)	3.38(.67)	13.88*** A>B,C,D,E
심리적 행복감	몰입감	3.12(.87)	2.68(.98)	2.77(.94)	2.71(.89)	2.58(.97)	1.61
	즐거움	3.30(.98)	2.86(.95)	2.77(.76)	2.99(.92)	3.01(.98)	2.13 ⁺

A:스포츠활동, B:취미교양활동, C:관람감상활동, D:사교활동, E:놀이오락활동

p<.01 *p<.001 (*p<.10)

〈표 9〉 여학생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여가만족도 및 심리적 행복감에 대한 분산분석

	스포츠 활동 (n=22)	취미교양 활동 (n=62)	관람감상 활동 (n=85)	사교 활동 (n=68)	놀이오락 활동 (n=39)	F	Tukey
	M(SD)	M(SD)	M(SD)	M(SD)	M(SD)		
여가만족도	교육적만족	3.71(.58)	3.48(.72)	3.06(.63)	3.31(.69)	3.23(.69)	6.01*** A>C
	신체적만족	3.50(.83)	3.27(.89)	2.99(.79)	3.10(.81)	2.99(.99)	2.31 ⁺
심리적 행복감	몰입감	2.54(.98)	2.44(.89)	2.44(.99)	2.44(.97)	2.81(.95)	.90
	즐거움	3.00(.97)	2.83(.96)	2.70(.84)	2.97(.78)	2.97(.77)	1.04

A:스포츠활동, B:취미교양활동, C:관람감상활동, D:사교활동, E:놀이오락활동

***p<.001 (*p<.10)

〈표 10〉 여가만족도와 심리적 행복감간 상관분석

	1	2	3	4	5	6	7
1. 정서적 만족	1						
2. 교육적 만족	.372***	1					
3. 사회적 만족	.429***	.529***	1				
4. 환경적 만족	.375***	.496***	.385***	1			
5. 신체적 만족	.405***	.466***	.364***	.424***	1		
6. 몰입감	.203***	.228***	.246***	.254***	.229***	1	
7. 즐거움	.135**	.292***	.311***	.211***	.161***	.772***	1

p<.01, *p<.001

〈표 11〉 여가만족도와 심리적 행복감의 관계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모형	B	SE	β	t
몰입감	(상수)	.341	.348	.979
	정서적 만족	.088	.090	.051
	교육적 만족	.062	.095	.038
	사회적 만족	.184	.083	.121
	환경적 만족	.213	.087	.131
	신체적 만족	.116	.068	.091
$R^2=.103, F=10.567^{***}$				
즐거움	(상수)	1.112	.294	3.784***
	정서적 만족	-.060	.076	-.041
	교육적 만족	.225	.080	.161
	사회적 만족	.286	.070	.220
	환경적 만족	.088	.074	.064
	신체적 만족	-.005	.057	-.005
$R^2=.123, F=12.875^{***}$				

* $p<.05$, ** $p<.01$, *** $p<.001$

<표 11>은 여가만족도와 심리적 행복감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그 결과 여가만족도의 사회적 만족은 몰입감($\beta=.121, p<.05$)과 즐거움($\beta=.220, p<.001$) 모두에, 교육적 만족은 즐거움($\beta=.161, p<.01$)에, 환경적 만족은 몰입감($\beta=.131, p<.05$)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만족도와 환경적 만족도가 높은 활동에서 몰입도가 증가하며, 사회적 만족과 교육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즐거움을 더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가만족도에 따른 심리적 행복감을 설명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변량 중에서 몰입감은 약 10.3%($R^2=.103$), 즐거움은 약 12.3%($R^2=.123$)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여가활동유형에 따라 여가만족도와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여가 참여의 만족도와 심리적 행복감 영위를 위한 전전한 여가 활동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도출하였다.

먼저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대해 성별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스포츠활동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관람감상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은 관람감상활동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포츠활동에 가장 저조한 참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김영태(2002), 김호영(2005), 방우정(1996), 윤종대 외(2009), 최재형(1999)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남학생은 주로 활동적인 운동을 즐기는 반면 여학생의 여가활동은 아직도 소극적인 활동인 컴퓨터, TV시청, 감상관련활동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성별에 따라 경험하는 여가활동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성별과 상관없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경험함으로써 미래의 진로에 대한 영역까지 확대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성별에 따른 여가만족도의 관계에서 교육적 만족, 신체적 만족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광중, 천윤석(2009), 김영태(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남학생은 경쟁, 기술 등의 동기가 강하여 신체적 활동 및 스포츠 활동 참여가 높으며,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권태로움이 적어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참여하는 여가에서 새로운 지식을 익히고, 그것을 실천해서 실천해 보면서 긍정적인 여가활동을 영위시키는데 만족감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성별에 따른 심리적 행복감에서는 몰입감과 즐거움 모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대 외(2009) 연구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행복감을 조사한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임영실(2004)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관적 안녕감을 조사한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남학생의 경우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신체를 이용한 체육활동을 통하여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래들과 어울리면서 자신의 일상생활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각을 회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 관람감상활동은 정적이며 도전과 경쟁적인 요소가 적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루어지기에 남학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심리적 행복감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여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신체 활동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동아리 활성화 방안도 요구된다.

초등학생의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따라 여가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 다른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보다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박상철(2001)의 연구결과에서도 스포츠 활동 참여자가 다른 여가활동 참여자보다 여가만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미현(2008)의 연구에서도 스포츠 활동에 참여한 집단이 교육적, 사회적, 신체적 만족에서 다른 활동유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스포츠 활동은 참가자로 하여금 정서적, 교육적, 사회적, 환경적, 신체적 만족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기회를 통하여 만족스럽고 긍정적인 여가를 경험하는데 많은 부분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스포츠 활동이 여가만족과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Baker & Palmer, 2006; Rodriguez *et al.*, 2008; Spiers & Waler, 2009). 반면, 스포츠 활동에만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여가활동에 다양성 영역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른 영역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여가에 대한 의미와 나아가 여가활동이 자기 계발과 자아 실현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체계적으로 지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따른 심리적 행복감을 살펴보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 다른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김호영(2005)은 여가활동이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건강 및 스포츠 활동, 관람 및 감상 활동, 오락 및 사교활동에서 심리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났다. 박상욱(1998)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여가활동이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건강 및 스포츠 활동, 관람 및 감상활동, 놀이 및 오락활동 순으로 심리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났다. 박미현(2008)의 연구에서도 스포츠 활동 참가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스트레스 해소 및 신체적인 유능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자신을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건강·체력 등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여가만족도와 심리적 행복감간의 관계에서 밀접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만족은 몰입감과 즐거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적 만족은 몰입감에, 교육적 만족은 즐거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리적 행복감 요인별 다소 차이는 있으나, 여가만족이 높을수록 심리적 행복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조사대상자는 상이하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남인수 외(2009)의 연구에서는 여가만족도와 심리적 행복감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미현(2008)과 임승엽(2000)은 중년여성의 경우 여가만족이 생활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란 궁극적으로 개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자신이 참여한 여가에서 느끼는 만족도가 일상 생활 속에서 느끼는 심리적 행복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본인이 원하거나 흥미를 느끼는 여가 활동에 참여하면서 여가활동으로부터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필수적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심리적 복지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그렇기에 초등학생이 여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적절한 프로그램, 지도자, 부모의 지지 등 학교, 사회, 국가간의 생태학적 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 여가에 대한 단편적인 실태조사 벗어나 구체적인 여가활동이 그들의 삶에 대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 대부분은 여가만족도와 심리적 행복감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경쟁적인 활동인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이 다른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에 비해서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초등학생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학교 및 기관에서 신체를 사용하고 스포츠 활동을 겸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여학생에게 스포츠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과 같이 제한점과 함께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만을 표집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아동의 범주에 속하는 다른 학년의 학생들과 비교가 어려웠다. 후속연구에서는 아동의 여가만족도와 심리적 행복감에 대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있도록 표집 대상을 보다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에서와 같이 성별에 따른 여가활동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성별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여가활동이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의 여가만족도와 심리적 행복감을 연구하기 위해 아동과의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기에 개량적인 연구에 덧붙여 인터뷰를 통한 좀 더 심도깊은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성인용 심리적 행복감을 아동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는데,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아동 대상의 심리적 행복감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아동의 정신건강과 연계된 후속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주제어: 초등학생, 여가참여유형, 여가만족도, 심리적 행복감

참 고 문 헌

- 고영태. (2006). 대학생들의 여가 유형별 여가참여 및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고천호. (2003). 고등학생의 여가활동 참여와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교육인적자원부. (2004). 주5일수업제 모든 학교 월1회 실시 방안 연구. 서울:교육인적자원부.
김경렬. (2010). 초등학생의 신체활동 참여가 학교적응 및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광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경집. (2006).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여가 인식 및 여가 활용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광중, 천윤석. (2009). 고등학생들의 여가 스포츠 활동 참가에 따른 참여동기와 여가만족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3(3), 19-31.
김미향. (2004). 특기·적성 교육활동 참여유형에 따른 여가태도 및 여가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3(3), 419-427.
김보숙. (2009). 초등 방과후학교 체육프로그램 참여 실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영재. (2004a). 한국형 여가만족척도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체육학회지*, 43(1), 291-299.
김영재. (2004b). 대학생의 여가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형 여가만족요인 사용. *한국스포츠리서치*, 15(2), 197-204.
김영태. (2002). 초등학생의 여가활동 실태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윤경. (2010). 초등학생 방과후 스포츠활동 참여가 신체적 자아개념과 체육수업 인식도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장훈. (2006). 주5일 수업에 따른 중학생들의 여가활용 방안.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재운. (2003). 교사의 여가활동참여와 교직스트레스, 교직만족, 자아실현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진곤. (2008). 주5일제 수업에 따른 초등학생의 여가 실태와 활성화 방안. 부산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호영. (2005). 초등학생의 여가활동 유형과 심리적 안녕감.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혜진. (2009). 방과후 학교 생활무용 프로그램 참여가 초등학생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춘천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남인수, 남경완, 김종철. (2009). 남자대학생의 여가참여 동기가 여가만족도와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3(2), 27-38.
문수정. (2009). 초등학생 댄스스포츠 특기·적성 교육 참여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학교 석

- 사학위논문.**
- 민경훈, 김수겸. (2008). 직업군인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 만족 및 심리적 행복감의 인과분석.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2(4), 21-32.
- 박교식 (2004). 주 5일제 수업실시에 따른 초등학생 여가 활동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동선. (2005). 중학생의 여가활동 참여가 사회성 발달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미현. (2008). 중년여성의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자아 존중감,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의 관계.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상숙. (1998). 청소년의 여가활동 참가와 참가유형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상철. (2001). 청소년의 여가활동 실태 및 유형과 여가 활동 활성화 방안 분석.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찬보. (2002). 고등학생의 여가활동 참여유형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방우정. (1996). 청소년의 여가활용실태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현주. (2008). 초등학생의 토요휴업일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석정선. (2009). 대도시 군 지역 초등학교 학생의 여가활동 실태분석.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근춘. (2004). 고등학생의 여가활동 참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명환. (1998). 신체활동과 심리적 행복감:인지적-정서적 상태 측정지의 개발.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9(2), 113-124.
- 윤종대, 정철규, 윤필규, 노미라. (2009). 중학생의 여가활동 참여 유형이 학교생활적응과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3(2), 125-134.
- 윤재성. (2004). 초등학생의 여가활동 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전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승엽. (2000). 기혼여성의 생활체육 참가와 운동몰입 경험 및 가정생활만족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영실. (2004). 청소년의 긍정적 자기지각과 주관적 안녕감 및 귀인성향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논문.**
- 전형상, 장순용. (2002). 여가활동유형별 생활만족에 관한 조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22, 41-256.
- 주경남. (2007). 초등학생의 주5일 수업제에 따른 여가활동실태. 공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지성현. (2006). 서울지역 초등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여가활동의 관계. *한국체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길례. (2006). 가족의 여가활동유형과 여가 동기와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6, 497-507.
- 최종연. (2004). 중학생의 여가활동 참가가 대인관계성향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재형. (1999). 청소년의 여가시간 활용에 나타난 생활체육의 경향에 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장호, 박영숙. (2003). 대학생의 여가활동유형과 생활만족에 대한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42(1), 347-356.
- 최혜란. (2000). 중학생의 여가활동 참여와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aker, D. A., & Palmer, R. J. (2006). Examining the effects of perceptions of community and recreation participation on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75, 395-418.
- Beard, J. G., & Ragged, M. G. (1980). Measuring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 20-33.
- Neulinger, J. & Raps, C. S. (1972). Leisure attitudes of an intellectual elit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4(3), 196-207.
- Rodriguez, A., Latkova, P., & Sun, Y. Y.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and life satisfaction: application of activity and need theory. *Social Indicators Research*, 86, 163-175.
- Shaw, S. M., Kleiber, D. A., & Caldwell, L. L. (1995). Leisure and identity formation in male and female adolescents: A preliminary examin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7(3), 245-263.
- Spiers, A., & Waler, G. J. (2009). The effects of Ethnicity and Leisure Satisfaction on Happiness, Peacefulness and Quality of Life. *Leisure Science*, 31, 84-99.

접수일 : 2011. 03. 15.
수정완료일 : 2011. 04. 27.
제재확정일 : 2011. 04. 28.